

민주 “이재명 대표 2차 소환은 망신주기·낙인 찍기” 반발

李, 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 출석요구 응하지 않을 듯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선 28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향후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대표의 전날 검찰 소환조사는 망신주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29일 정가와 법조계 등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복 부장검사)·3부(부장검사 강백선)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전날 이 대표 측에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의 최종 결정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분량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전날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한 데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구두 진술 대신 제출한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에 최측근 정진상, 김용 씨의 불법 공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도 검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이유다.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명확히 답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한 번 더 포도라

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구속영장에 성남지청이 소환 조사를 마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공소사실에 함께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원에서 벌어진 ‘2라운드’를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다. 야당 대표를 포도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수사 목적이 진상 규명에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강패지 검사인가’라고 발언했던 것과 비교하며 “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에게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것은 강패인가, 검사인가”라고 되물었다.

검찰 조사를 ‘갑질’로 규정,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 검찰독재정지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망신주기에 혈안이 된 검사 갑질 규탄한다”면서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는 등 편파·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서울중앙지검이 일부 언론사만 포도라인을 촬영할 수 있게 했지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와 관계없이 영상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막아서, 제한된 언론만 취재를 허용하면서 일부 유튜버에게는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상부 지침인가”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두번째 검찰 조사 마친 이재명 대표 여론전·민생행보로 맞대응 나선다

난방비 이슈·기본사회위 가동 당, 이상민 탄핵 카드 ‘만지작’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기기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민생 부문에서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대안 야당’, ‘정책 야당’의 면모를 강조하는 것만큼 ‘검찰 리스크’ 국면을 탈피할 효율적 카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면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으로도 각종 민생 이슈를 개발하고 부각하는 것을 당 운영 최우선 순위로 놓을 방침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까지 끌어내 민생 이슈를 선점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대어(對擧) 압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구상인 ‘기본사회’를 구체화할 당 기본사회위원회 역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가 위

임장을 직접 맡고,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진전을 보내는 등 기본사회위 출범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대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특별 수사본부(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까지 마치고도 이렇다 할 문책의 움직임이 없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장관 경질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이모터스 추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 여사 수사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검찰 리스크’는 상존하는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레이더를 가동하고 방어 논리 개발에도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하는 등 검찰이 제기한 각종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과 관련,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조수진 의원 1박2일 순천 등 방문...예산 지원 현안 논의

무소속 단체장 지자체 찾아 특별교부세 129억 지원 끌어내

국회의원 조수진(비례) 의원이 3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남을 찾는다.

조 의원은 이번 전남 방문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건의해 지원된 특별교부금 예산 등이 투입된 지원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추가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전남지역 무소속 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지역현안 예산을 청취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 정부수석 등 정부와 대통령실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전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한 예산 확정을 위해 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과 논의하고 협력했다.

조 의원은 30일 순천에서 노관규 시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순천시 특별교부세 사업 등의 건의를 들을 예정이다.

그리고 순천 국가정원박람회 관련 간담회와 여자만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어 광양으로 이동해 정인화 광양시장을 만나 지역현안 사업 등을 듣고, 다음날은 목포에서 박홍목 목포시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예산이 지원된 목포 세라믹산단과 고하도 해상데크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영광을 둘러 지난해 예산이 지원된 백수해안도로 현장을 방문한 뒤, 강종만 영광군수를 만나 추가적인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올해 조 의원이 정부에 건의한 전남·전북 예산이 34억4000여만원에 달하고, 전남·전북에 특별교부세 지원액도 129억원이나 된다”면서 “목포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광양항 출몰산단 연결도로 개설 용역비, 순천 에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예산 지원에 나선 전남·전북 지자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로 전남은 순천·목포·광양·영광·신안 등이고, 전북은 무주군이다.

조 의원은 “이번 전남 방문을 통해 그동안 예산이 지원된 현장을 둘러본 뒤 향후 정부와 여당이 알아야 할 것, 귀 기울여야 할 것,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 들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하게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